

□ 개요

- 기관명 : 사회적 약자 집중 이용시설 3개 기관

< 장애인종합복지관(울산, 부산), 애육원(양산) >

- 설립목적

- 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를 가진 이들(가족)과 지역주민과의 연결고리가 되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구
- 애육원 :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수용, 보호하기 위함

- 주 소

- 장애인종합복지관(울산) : 울산시 중구 백양로 160
- 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50번길 15
- 양산애육원 : 경남 양산시 교동1길 51

- 인원현황(이용자) : 111,695명/년

- 장애인종합복지관(울산) : 150명/일 * 240일/년 = 36,000명/년
- 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 : 250명/일 * 240일/년 = 60,000명/년
- 양산애육원 : 43명/일 * 365일/년 = 15,695명/년

- 일 시

- 1차 : '19.10.23(수) 14:00 ~ 15:00 /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2차 : '19.10.25(금) 10:30 ~ 11:30 /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3차 : '19.11.01(금) 10:30 ~ 11:30 / 양산애육원

- 내 용 : 제도권 밖의 사회적 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안전 시설에 대하여 공단, 제조사 합동으로 보일러 안전 진단 및 효율 점검 추진으로 안전한 사회 구축

- 참석자 : 지역전략실 및 보일러 제조업체(미우라, 부스타)

- 작성자 : 지역전략실 김호경 주임

□ 내용

- 공단은 38년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강릉펜션사고, 김포 요양병원 화재 등 제도권 밖에 있는 보일러들의 사고소식을 들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제도권 밖의 시설이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단만의 힘으로 非 제도권 검사대상 보일러 설치현황, 보일러 운전 환경 및 설비 관리자의 안전진단 수용성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 제조사, 시공업체, 기기관리자들이 포함 되어 있는 고객소통위원회를 통하여 非 검사대상기기 설치현황을 협조를 통하여 도움을 제공해드릴 기관들의 정보를 알 수 있었으며, 보일러 제조사와 함께 합동 진단을 수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청소년)가 집중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애육원)을 대상으로 3곳을 선정하여 해당시설의 보일러를 관리하시는 담당자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도 많으셨지만 공단의 기술력과 경험, 사용하고 계시는 보일러 제조사에서도 합동으로 점검을 통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안전한 이용시설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담당자분들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주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등 협업을 통해 대상 확대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 또한 검토하여 이번 3개기관의 연 이용자수인 10만명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번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일회성의 도움이 아닌 지속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리더로서 국민안전을 생각하는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에필로그

- 장애인종합복지관(울산) - 황동호 관리자 / 052-248-5914
- 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 - 김종식 관리자 / 051-790-6107
- 양산애육원 - 주진호 관리자 / 055-386-2573

- 참고사항 : 장애인종합복지관, 애육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실 때 기관의 특징을 잘 파악 하셔서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단순한 활동보다는 부서의 업무를 연계해서 활동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